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02) 517-7651~5 팩스(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 온 교회가 일어나 함께 건너는 홍해



2000 홍해작전이 오늘 진군 6일째를 맞이했다. 이번주에는 교회주변 청소, 목회자세미나를 위한 기도회 등을 실시한다.

### 2000 홍해작전 천국시민운동

홍해작전 참모본부에서는 천국시민의 삶 실천을 위해 12일(월) 홍해작전새벽기도회 후에 교회주변을 청소하기로 했다.

교구별 청소 및 전도 담당 구역은 우측 상단

의 <표>와 같다. 청소를 위해 개인 혹은 가정별로 간단한 청소도구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15일(목) 새벽기도회 후엔 새 예배당 건축 현장 방문 및 정리를 하며 17일(토)에는 교회 주변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목회자세미나와 봉사자를 위한

### 2000 홍해작전 진증기도회

한국교회개신연구원(원감 하영수 장로)은 16

일 오후 6시부터 교회당에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 기도회는 이종윤 목사의 특강과 목회자신학세미나 경과보고에 이어 목회자세미나와 한국교회 개신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도회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저녁식사를 겸한 친교회를 갖고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기간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 탈북난민 UN청원 서명운동 700만 명 돌파

7일 감사예배… 오는 8월까지 1천만명 목표

탈북난민 UN청원운동추진위원회는 7일(수) 700만 명 서명감사예배를 드렸다. 운동본부측 발표에 의하면 10만부장에 김인식 권사와 김세재 집사, 5만부장에 박순봉 권사와 김선미

권사 등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지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61만 669명의 서명을

받음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탈북난민을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은 오는

###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종강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총 307명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수료식을 갖는다.

이 수료식에서는 3월에 개강하여 10주간 진행해 온 지도자양성반을 비롯, 신령기반, 여호수

야반 및 음악교실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종강을 감사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는다.

오늘 수료하는 인원은 지도자양성반 235명 등 총 315명이다. <관련기사 3면>

##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 6일(화) 개전한 홍해작전에서 매일 새벽 예배실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은 산상보훈을 통해 교훈을 받고 7가지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은 9일의 홍해작전)

## ▼ 교구별 청소담당구역



8월 15일까지 1천 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100만 명 달성을 박차를 가지고 있다.

## 6월 테마전도

## 불신 부모님 모셔오기

이 달 마지막 주일인 25일 테마전도의 주제는 "불신 부모님 모셔오기".

전도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로 정하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달 테마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을 모셔와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자의 도 ⑥

# 모범적인 가정을 세우는 사람

사도행전 21장 7·14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미루르니라 그에게 딸 네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려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틀가 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 임지를 걸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 가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종윤 목사

훌륭한 가정은 좋은 사회와 아름다운 국가와 은혜스러운 교회의 기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 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모범적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 가정으로부터 좋은 것을 취하기만 하고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하여 마치 기생충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과 경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셋째로, 가정과 교회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정, 가정을 든든히 하는 교회로서 이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모범적인 가정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세상에는 자기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의무에 충실히 것으로 만족하는 인색한 가정이 있고, 주어진 책임보다 훨씬 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빌립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전력하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쳐 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8절). 빌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가정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집사의 본질은 현금 관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는 빌립을 집사로 명명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전도를 많이 하여 집사의 책임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마땅한 의무 이상의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자녀 양육에 성공한 가정

빌립의 집에는 네 딸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예언하는 자였습니다(9절).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결혼

도 하지 않고 성직에 자신을 바친 빌립의 자녀들은 후일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로 이주하여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손에게 명예나 권력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바램이요, 자녀에게 신앙을 계대해 주는 일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가정은 자손들에게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본을 보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즐겁게 해 주려는 노력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바르게 전수시켜주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은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계대해 주는 가정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딤전 3:5).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만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바쳐지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돌볼 자격이 없습니다.

## 3. 이웃에게 봉사하는 가정

빌립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이방인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요, 봉사에는 방관자가 없는 복음을 실천하는 일꾼의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팝박으로 유랑자처럼 피신해 다니는 수많은 믿음의 길손들의 피난처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저들의 빌립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합심하여 기도했고 영과 육에 새 힘을 충전 받아 새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내 집만을 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남을 공제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야 합니다(갈6:10). 남에게 봉사하려면 먼저 봉사할 마음과 신앙적 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거나, 힘은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남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되는 곳이요,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수련하는 장이요, 복음 전도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말씀에 기초를 두고 형제를 사랑하되 특히 믿음의 권속을 서로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민족사회,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 1기 지도자양성반을 마치며

○… 겸손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먼저 말씀 위에서 행복을 찾을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다향방장의 소임을 다 못한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의 혼신을 다짐합니다.

장양일(집사, 6교구)

○… 생각했던 것보다 일찬 교육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배운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앞으로 맡게 될 다향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북상”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백수남(집사, 5교구)

○…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여러 곳에서 들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운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희(집사, 5교구)

○… 성경 말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평생이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한 두명이 모일지라도 다향방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하며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제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며 놀랐습니다.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엄금순(집사, 5교구)

○… 알지 못해 실수한 잘못을 발견한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한 영성훈련, 시간관리, 다향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전교인이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 정도로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이영숙(집사, 7교구)

## 여호수아반 공부를 마치며

# 두 딸에게 남길 유언

박명석(권사, 유아부 교사)

여리고 성에 입성하여 아이 성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알차고 값진 말씀을 10주간의 여호수아 성경반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서로 토론하며 배울 때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세운 종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교만과 힘으로 하여 실패했던 아이 성 그중에 사라사욕으로 인하여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린 아간의 행동 85세의 나이에도 나는 아직도 젊으으니 하며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갈렙… 요단강을 건너며 버려야 할 것들,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불순종, 교만, 이기심, 자존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12 지파가 견뎌온 린 중거물의 돌들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하여 요셉 자손의 기업인 세겜에 장사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그들의 기업인 애부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으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한 바 “좌로나 우로

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행하며 이방신들을 섬기기 말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저도 저의 후손들에게 진정 어떠한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딸에게 이 기회를 계기로 유언합니다.

“나의 딸 정연아 재연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 너희는 항상 너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라.”

## 6월 학습 · 세례식

6월 학습 · 세례식이 21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11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18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미침하신 성도는 19일(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 · 세례자 문답은 20일(화)에 있다.

##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 수료자

### ■ 제 1기 지도자양성반 ■

#### 1교구

김연숙 김은태 김인숙 박정순 이규희 이민자 이신애 이인선 이해란 임송자 임옥균 전미미 주화인 최근자 최양진

#### 2교구

김범래 김찬진 김형배 노순례 배은희 송동선 송두심 송향란 안정옥 오충례 이갑연 이신정 이연성 이자혁 임인자 장 덕 정경옥 주경자 최규초 최형렬 최홍렬 한정아 한충현 허상한 허현숙 허희철 황정옥

#### 3교구

고정숙 김명식 김상옥 김연숙 김영주 김우숙 김유경 김인순 김진희 김현숙 김현정 남래순 노인숙 박분숙 박윤자 신동기 심화숙 인분선 양을자 양민숙 오유식 오정수 오형철 이봉규 이순희 이영희1 이영희2 이재봉 이해순 임인숙 전원순 정병무 정하자 조성엽 최용걸 최일준 최임수 최재준 최현인 하영수

#### 4교구

강영자 김규태 김금준 김세계 김은희 김재술 나종영 박미혜 박우옥 박정섭 오길탁 유명석 이계홍 이남복 이승희 이영희 이은희 임영미 임훈규 장효우 정경자 정천수 조준태 홍광숙

#### 5교구

김종자 민순구 박성희 박영우 박진희 방승희 백수남 손재겸 엄금순 우상태 이광열 전정숙 최미아 최소희 최학인 탁경준 황선희

#### 6교구

권윤경 김경옥 김윤자 김정란 노송성 송윤수 유을상 이영옥 이영희 이은진 장양일 정정숙 조철기

#### 7교구

김영준 김예환 김재성 김치순 김희진 박두호 박대희 유순섭 윤운식 이상호 이영기 이영숙 진경옥 한성옥 함은희

#### 8교구

강희자 김영식 김정운 서문식 서영희 여현진 이봉선 제오복 조정식 한춘홍 홍성주

#### 9교구

권순단 김순자 김중근 김진숙B 문분순 박두영 서춘식 윤봉준 이경화 이금남 이남성 이동만 이성애 장명순 전용수 전행자 조상희 최영란 최혜순 한종우 황노진 황재연

#### 10교구

박연순 윤찬오 이복규 이완형 장낙희 전수자 최길옥 최종시 한명순 성춘모

#### 11교구

김남순 김정희 노문환 박철훈 송혜숙 오성애 왕경래 이경희 이영자 이우상 장정화 전배호 정연택 정호진 조정옥 최재규 하숙

#### 12교구

김광신 김선희 김숙자 김윤자 김진숙 김혜경 나기태 서희숙 오광환 위성남 이재윤 이영희 임상현 조선영 한건석

### ■ 신명기반 ■

김선미 김세재 김정희 박두영 박두호 송두심 왕경래 윤찬오 이경구 이관규 이복규 이옥녀 전배호 정병무 정연택 조정옥 최영순 최용걸 하영수

### ■ 여호수아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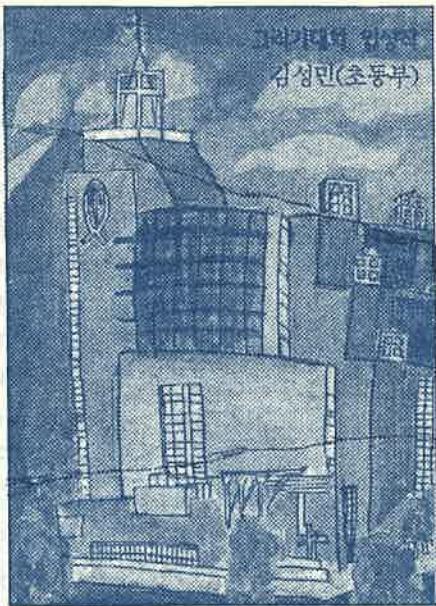
강혜신 권영자 김경희 김동호 김복녀 김숙자 김영연 김유경 김인숙 김인순 김정두 김정희 김하중 박명석 방계운 배영에 손재겸 심재을 안정옥 유후자 이민화 이영희 이옥녀 이옥현 전인화 정하자 조봉환 조선영 조정옥 주하인 최경애 최영순 최일준 최재준 한건석 한금희 한정원 한춘홍 허인숙 허현숙

### ■ 음악교실 ■

김연숙 김영미 박애수 성춘모 유을상 이동만 이지은 이체봉 이태원 이환복 이희자 전배호 정연택 정천수 조정옥 최용걸 최일준 최재준 허상한 홍연홍 홍창호

## 한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 지난 6일(화) 단국대학교에서 한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유아부 학생부터 소망부 어르신들까지 서울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뜨거운 열기로 행사를 가득 채웠다. 청·백팀의 열띤 응원과 선의의 경쟁 속에 서 즐거움의 고성도 터져나오고 많은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어 유난히도 푸짐했던 상품을 받아든 선수들의 입 가에 흐뭇한 미소도 훌려 나왔다. 우승기는 백팀에게로 돌아갔다. 성도들은 준비위원회의 빈틈없는 진행이 돋보였다는 평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가 정기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



### ■ 4행시 입상작 ■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의 지하에 하여 주신 주님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 주님  
랑으로 시작되는 단어 찾으려고 성경 한 권 몽땅 읽었습니다, 주님  
서울교회에 갔었습니다, 형님  
울면서 설교 듣고 엄청 은혜받았습니다, 형님  
교만한 맘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형님  
회개하고 서울교회 갑시다, 형님

이강인(집사, 11교구)

나는 아홉살이다.  
의젓한 아홉살이다.  
사랑하는 서울교회도 아홉살이다.  
랑 날 9세!

서울교회 울보를 찾아라!  
울보를 찾았다!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김소연(유년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에 서울교회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울먹이며 감격에 넘치나이다  
교회당이 완성되는 날은  
회회비 바람이 일듯 주께서 이땅에 오신 그날처럼 새천년이 시작되리라! 나미용(찬양대원)

서울 한복판에 새로 지어지는 우리 교회는  
울창한 아파트 숲이 배경이고  
교제하기 좋은 공원도 있으니  
회합 장소로는 영육간에 유품이지요  
오충례(집사, 1교구)



## 서울주간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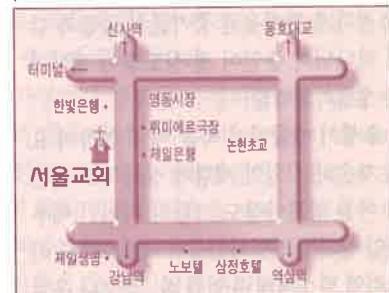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의 승전을 위해
2. 서울성경대학을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3. 탈북난민을 위한 서명운동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오후 2시
찬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 ■ 전화번호 변경 ■

\* 차복녀 권사(8교구), ☎ 999-7802

### ■ 이동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